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더러운 영은 버리고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과 북이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모든 문제를 민중끼리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기로 약속했으니 다행입니다. 모쪼록 이번 합의를 우리나라의 ‘평화를 여는 창’, ‘평화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진 한설(寒雪)로 꿈꿨던 이 땅에서도 드디어 생명이 움트는 하느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되니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카파르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회당에 모여 있던 사람들 사이에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라며 외칩니다. 예수님께서서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하고 꾸짖으시자 어리석은 이를 사로잡고 마음대로 부러먹던 더러운 영은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는 지 500년이 지났지만 교회의 모습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선교 제일주의, 성장 우선주의라는 굴레에 빠져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의식마저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종교와 자본주의, 영혼과 물질의 동시부패라는 문제 앞에 우리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웃 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하는 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톨릭교회의 처지도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물질과 돈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있어야 할 것은 사라지고 도리어 없어야 할 것들이 그 자리에서 땡땡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러운 영은 관행, 습성, 타성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저항합니다. ‘회광반조(廻光返照)’요,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 이제는 불을 밝혀 우리의 내면을 날낱이 비추고 사된 것들을 몰아내어 맑고 바른 기운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새 숨(靈)은 맘껏 맞아들이고, 더러운 숨(靈)은 버려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새로운 영은 없고, 없어야 할 더러운 영만 가득하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바른 길을 걷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겪어야 할 숙명은 진통이 따르더라도 고여 있는 더러운 영을 비워내는 일입니다. 중세 독일의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1260-1327)는 모든 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덕을 ‘버림’이라고 했습니다. ‘버림’은 영혼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씻어주며, 양심을 불태우고, 영을 깨우고, 소망에 생기를 주고, 하느님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은 버리고, 있어야 할 영은 애써 갖추어야 비로소 하느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태화동 본당 김영식 요셉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4주일이자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당신 구원의지를 드러내시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실현하십니다.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의지에 합하여 우리의 정성을 봉헌합시다.

입당성가 : 329번 ‘미사 시작’

본기도

†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신명기 18장 15절-20절

안 내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말씀에 충실한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묵 상 :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하느님과 소통하고 하느님께서 그 예언자를 단련하시어 당신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이스라엘 앞에 세우십니다.

화 답 송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2독서 : 코린토 1서 7장 32절-35절

안 내 :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하는 이들은 품위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묵 상 : 주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온을 줍니다. 세상일을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걱정하는 이들은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1장 21절-28절

강 론 : ‘더러운 영은 버리고’(1-2쪽)

예물준비성가 :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 502번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영성체 후 묵상

주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온을 줍니다.

세상일을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걱정하는 이들은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침묵>

시끄러운 변명과 핑계를 지나 고요히 머물 때

하느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씻으시고

창조 때의 모습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번 ‘불의가 세상을 덮어도’

※ 공소사목 성금

송규흠님	50,000원	박봉연님	30,000원
오일창님	50,000원	익명	100,000원
이영순님	50,000원	신흥공소	300,000원
모동공소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68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림

■ 가흥동 새 본당 첫 미사

- 일시 : 2월 4일(주일) 11:00
(본당 설립 : 1월 16일)
- 장소 : 영주 가흥동 성당
- 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주임신부 : 정성호 세례자 요한 신부

■ 2018년 1차 가나혼인강좌 (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2월 3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1월 30일(화)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2018년 교리교사학교

- 주제 : '말씀 속 미사 이야기'
- 일시 : 2월 3일(토) 13:30 - 4일(주일) 15:3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안동교구 초중고 주일학교 교사(신임, 재임)
- 참가비 : 45,000원
- 준비물 : 성경, 미사준비, 세면도구, 필기구

■ 여성연합회 총회 및 연수

- 일시 : 2월 7일(수) 10:00 - 16: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대상 : 본당 여성연합회 회원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1월 30일(화)까지 사목국

■ 제8기 안동교구 신앙대학 신입생 모집

- 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
- 원서교부 : 본당신부님 혹은 교구 홈페이지
- 입학정원 : 50명
- 수업료 : 18만원(입학금 3만원 포함)
- 과정 : 구약성경 입문, 신약성경 입문,
그리스도론, 성사론, 교회사,
교회론, 윤리신학, 전례학,
교회법, 영성신학 (2년 과정)
- 교육장소 : 안동교구청 1층 강당
- 문의 및 접수 : 2월 8일(목)까지 사목국으로

■ 2018년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등록

- 대상 : 사제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과 일반인
- 등록방법 : 등록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접수
- 등록금 : 1인 50,000원(1년)
- 등록기간 : 2월 7일(수)까지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2018년 안동교구 “여학생 수도 성소자” 등록

- 대상 :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여학생(중1~고3)과 일반인
- 등록금 : 1인 50,000원
- 등록기간 : 2월 7일(수)까지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안동, 의성지구 구역·반장연수

- 날짜 : 2월 11일(주일) 의성 성당
- 시간 : 10:00 - 16:00
- 준비물 : 필기도구, 미사준비
- 대상 : 각 본당 구역·반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안내[교구 구간]

- 교구기간 : 2018.1.27(토) ~ 1.30(화)
- 참가대상 : 탈핵을 희망하는 모든 분
- 1.28(일) 남성동성당-문경시청-모전동성당
- 1.29(월) 모전동성당-문경성당
- 1.30(화) 문경성당-문경새재-수안보성당
- 출발 오전 8시 30분, 도착은 오후 4~5시
개인여건에 따라 구간 선택해 참가
- 순례용품은 순례단에서 제공, 개인용 컵은 지참
- 문의 : 010-4219-6308/010-3827-2275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사목협의회]

■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사업’을 위한 본당 사료 수집 요청

- 목적 : 역사자료 보존 및 활용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보관하는 오래된
사진, 책, 성물 등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 안동교구청 사목국 직원 모집

- 지원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미혼,
문서편집 가능(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운전면허 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및 세례증명서
- 문의 : 858-3114-5, kimatheo@hanmail.net
- 면접 : 서류 전형 후 개별 통보

■ 갈전 본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꽃감 판매

- 건시 1.5Kg 이상, 30개~40개 3만원
- 물 좋고 공기 맑은 청정 예천 감만을 엄선
하여 햇살 가득 담아 정성스럽게 만들었
습니다. 전통방식으로 만들어 맛과 향이
 좋습니다.
- 담당자 : 김선희 로사 010-4945-9804
- 계좌 : 농협 351-0922-4848-43
재단법인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 제21회 가톨릭 미술상 수상자 발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가 주
최하는 제21회 가톨릭 미술상 보상 회화 부
문에 김만용 프란치스코 선생(갈전 본당)이
선정됐다.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하나 하나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으므로, …… 인간은 단순히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가톨릭 교회 교리서』, 357항)이라는 이 신앙의 진리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다른 이들을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하느님을 만나며, 다른 이들도 우리 자신을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맞이한 해외 원조 주일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어야 하는 사명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려질 위기에 놓인 하느님의 모습을 지켜 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책무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고, 또 반대로 하느님의 모습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책무를 강력하게 일깨워 주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적 혼란, 종교 간의 대립, 인종 차별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 박해나 분쟁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소식을 쉽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에게 고향은 생활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향은 풍요로움과 안전과 희망을 주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터전에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의 삶이 박해와 분쟁으로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삶으로 변하였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분쟁과 박해로 발생한 난민의 수가 6,56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 난민 수는 66% 증가했으며, 그 중 최근 3년 동안 40%

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1분마다 20명의 새로운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유엔난민기구, 2016년 통계 참조). 그렇지만 늘어나는 난민만큼이나 난민 발생 지역 주변국들에서는 난민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 또한 증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환대하는 것’(2016년 세계 이민의 날 담화 참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난민을 보호하자고 전 세계에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교황님께서서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난민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버리고 환대할 수 있는 ‘만남의 문화’(Culture of Encounter)를 우리 교회부터 먼저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시면서, 2017년 9월 27일 “난민의 여정에 함께합시다”(Share the Journey)라는 주제로 난민을 위한 캠페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에게 난민과 함께 희망을 나누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자고 권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민은 통계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희망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국제 카리타스 164개 회원국들과 함께 한국 천주교회의 해외 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리타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체험했고 그 체험 속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 덕분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해외 원조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한국 교회 신자들의 정성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고향을 잃어버린 나이지리아, 니제르, 남수단, 부룬디, 부탄, 미얀마, 시리아, 수단,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의 난민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난민에게 작은 희망이 시작되었고 그 희망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느님의 모습은 우리와 난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도 한국천주교회는 난민이 희망을 키우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 세계 난민과 만남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만남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28일 해외 원조 주일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사장
김윤희 루카 주교



산행의 방법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시간이 나는 오후엔 앞산을 오른다. 산이라고는 하지만 해발 300미터가 조금 넘는 야트막한 둔덕이다. 그래도 오르기는 쉽지 않다. 초입부터 심한 경사여서 숨을 헐떡인다. 10분을 올라가면 거기서 부터는 평지에 가깝다. 또 10분을 걸어가면 같은 경사를 만난다. 조금 걸을 만하면 고개가 나온다. 그렇게 4개의 고개를 지나야 정상에 도착한다. 부드러운 흙을 밟을 수 있고 낙엽도 많아 걷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여름에도 시원한 나무그늘과 바람이 있어 더없이 좋다. 동네마실 나가듯 운동화만 신으면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곳이다. 빠른 걸음이면 정상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산을 오르면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진달래꽃이 피기 시작하면 봄이 왔다는 신호다. 빠꾸기 소리가 들리면 봄이 지나가는 시기이고 아카시아 꽃향기가 코끝을 자극하면 곧 여름이다. 매미소리는 여름의 절정을 알린다. 고추잠자리가 낮게 날면 가을이 온 것이고 떡갈나무 잎이 마르기 시작하면 멀지 않아 겨울이 시작된다.

젊은 시절, 주말마다 산을 오른 적이 있다. 직장의 등산클럽회원들과 국내 유명산들은 대부분 다녀왔다. 산을 즐기기 위한 등산은 아니었다. 높은 산을 택해 경쟁하듯 부지런히 다녔을 뿐이다. 어느 산에 갔다 왔는지, 몇 개의 산을 올랐는지가 중요했다.

청춘을 바쳐 일하던 직장도 내겐 등산길이였다. 쉬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며 걸었던 길이었다. 그랬지만 끝내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다. 정상을 눈앞에 두고 뜻하지 않는 사고로 등정을 포기해야만 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어서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는 컸다. 오르는 길도 멀고 힘들었지만 내게는 내려오는 길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추스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신중해야 하는데도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저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생각에 서두르기만 했다. 자신감이 넘쳐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 높은 곳에서는 바람만 세게 불어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한 발만 헛디디면 바로 사고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사방에 온통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것을 사고를 당한 뒤에야 깨닫게 되었다. 아둔하기 짝이 없었다. 신중하지 못하고 방심한 대가는 컸다. 지울 수 없는 상처에다 수십 년을 쌓아온 명예까지 잃어버렸다.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인생의 산행방법을 배운 셈이 되었다.

산은 조심해서 올라야 한다. 아무리 낮은 산도 만만하게 볼일이 아니다. 힘이 들면 쉬어야 끝까지 갈 수 있다. 방향은 정확하게, 그러나 쉬엄쉬엄 끈기 있게 가야한다. 내 페이스대로 가면 된다. 서두르면 많이 빠를 것 같지만 기껏해야 10~20분차이다.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늦을 뿐, 도착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상은 늘 그 자리에 있어 언젠가는 오를 수 있다. 목적보다는 과정을 즐겨야 행복한 산행이 된다.

여유롭게 걸어도 땀이 배일 때쯤이면 정상에 도착한다. 잠시 가쁜 숨을 고르고, 목부터 축인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준다. 양팔을 벌리고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다. 그리고는 나무에 기대어 가만히 산이 숨 쉬는 소리를 듣는다.

내려오는 길은 더 조심스럽다. 심한 내리막길에서는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내딛는 발에 힘을 주고 몸의 중심을 잡아야 미끄러지지 않는다. 어쩌면 인생의 하산 길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마지막 경사면을 벗어나서야 고개를 든다. 어느새 해는 서산마루에 걸려있다. 저녁노을이 유난히 붉다.